
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배포일자	2022년 3월 14일(월) 총 2매	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    안전정책과	담 당 자	• 안전교육팀장    김 문 성 ☎440-1891 • 담당자            홍 하 나 ☎440-1893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반짝반짝' 가방네임택,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대**  
**- 인천시, 266개 초등 1학년 전체 25천여 명에게 교통안전물품 지원 -**  
**-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문화 정착 도모 -**

인천광역시는 새 학기 등교에 맞춰 인천 내 266개 초등학교, 1학년 전체 학생 2만5,305명에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‘어린이 안전 가방네임택’을 배부했다고 밝혔다.

‘어린이 안전 가방네임택(옐로카드)’은 가방에 부착하는 교통안전용품으로, 빛을 반사해 멀리서도 차량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다.

가방네임택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제한속도 ‘30(km/h)’를 표기해 차량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다.

지난 해 관내 262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, 2만5,048명에게 어린이 가방안전덮개를 제작·배부한 인천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심의결과를 반영해 가방네임택으로 품목을 변경했다.

시는 이번 가방네임택 사업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문화를 정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이밖에도 시는 시민과 함께 안전문화 조성과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안전문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.

노약자 등을 직접 찾아가 비상상황 탈출 체험교육을 실시했으며, 어린이 대상 뮤지컬 안전교육 공연을 개최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.

최기건 시 안전정책과장은 “안전문화 정착 및 시민의 재난대처능력 향상에 노력하고,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확대해 인천광역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(어린이 가방네임택 사진)

